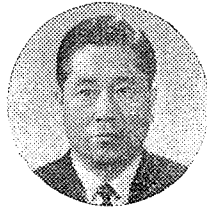


임상면에서의 보건교육



가톨릭의과대학 교수 전 종 휘

보건교육의 의의와 목적

보건교육은 보건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보건요원 (의사 간호원 위생관 그외) 은 누구나 보건교육활동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그 직책에 따라 그 활동분야와 범위와 실천방법이 다를수 있겠으나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들과 같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습득과정을 통하여 보건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 (Knowledge) 태도 (Attitude) 및 습관 (Practice)을 갖게 하는것」 이 보건교육의 총괄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다.

보건교육도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식이나 개념이나 또는 행동을 고치는데 있는 것이다. 이 습득과정을 통하여 바른 지식을 얻게 되고 또 개념도 고침을 받아서 이 얻은 올바른 지식과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실천에 옮기게 되며 이 거듭되는 실천이 습관화 되므로서 궁극적인 보건교육의 성공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교육의 목적은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자기의 보건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행동하여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새롭고 바른 지식을 이해시키는 이상으로 잘못된 신념이나 올바르지 못한 관습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를 가짐과 아울러 그 지역의 관습, 미신, 종교적 의식, 생활방식 따위에도 관심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

보건교육의 필연성

현대적인 사회의식에 눈뜨고 올바른 의학교육을 받은자라면 효율적인 의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나마 바르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여 주고 있는가! 예방대책은 말할것도 없고 재발이나 악화방지를 위하여 환자나 그 가족을 옹계 지도 계몽하여 주고 있는가! 지역사회외의 보건이나 복지를 위하여 어느만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따위에 대하여 늘 자아비판과 자성 (自省) 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학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의사상(像)의 목표로서 「완벽한 학습을 습득한 사람보다는 도리어 충분한 의학교육을 받고 폭넓은 의학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장래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미래지향성인간)」으로 규정짓는 것이 통례이다.

오늘의 주제인 보건교육을 예방의학면에서 임상면에서 또 지역사회 의학면에서 실천하는 보건 일

끝이 의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바람직한 의사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로 부터의 의사는 신체적인 면보다도 도리어 환경조건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욕자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을 확대 전개시킬때 진염성질환마저도 이것이 어떤 병원 미생체의 침습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회환경적 질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런지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말한 「환경조건을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요사이 읽은 문헌중에서 인상깊게 흥미있게 읽은 대목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저 유명한 프랑스의 세균학자 파스틀 탄생 150주년 기념강연회 (1973년봄)에서 「룩펠러」대학 미생물 교수는 Rene Dubo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개하였다.

「파스틀은 최종적으로 미생물을 병인으로 인정하기전에 환경요인을 대단히 중시하고 검토를 되풀이 하는것이 통례였다. 가령 누에가 병들었을 경우 동료들이 기생충병의 특징을 확인, 유력한 증거를 제시한 후에도 파스틀은 기생충을 병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환경조건이 극단적으로 나쁠경우 예컨대 좁은 곳에 많은 누에가 넣어졌거나 사료가 불충분하거나 통풍이 잘 안되거나 할 경우에 병증상이 가장 중독하게 됨을 파스틀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이 병이 기생충에 의한 것임을 확신한 후에도 좋지 않은 환경조건에 의한 누에의 저항력의 저하가 발병 원인의 하나라고 파스틀은 믿고 있었다.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 신체는 저항력이 떨어진 경우에만 위험하게 되는 무수한 미생물과 항상 접촉하고 있음을 파스틀은 알고 있었다 또한 심리적인 상태가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까지 파스틀은 말하고 있다」 이어서 Dr. Dubos는 말하기를 현재 알려지고 있는 감염과정은 그 대부분이 고전적인 면역학이나 화학요법의 개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였으며 감염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병원체나 그에 의해 야기되는 면역반응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병원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생리기구의 해명도 필요하게 될것이라 하였다 위의 사실을 소개하는 이유는 옳바르고 실효 있는 보건교육을 실시하려면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제로 부터의 보건요원은 신체적인면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환경조건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며 다음의 소개하는 임상면에서의 구체적인 보건교육의 대전제(大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전염병이라는 대신에 빈곤, 무지, 비위생 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회환경 질환이며 이것들의 개선에 의하여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정의로서 받아들여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상면에서의 보건교육

오늘 주제에서 이미 나누어논바와 같이 보건교육을 크게 세가지 면에서 (1) 예방의학면 (2) 임상면 (3) 지역사회 의학면에서 다룰 수 있을것인데 그 교육대상이나 교육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임상면에서 보건교육을 맡아서 행사할때 자연적으로 그 교육대상은 환자나 그 가족이 될것이며 교육방법은 주로 일방식(一方式)과정 또는 전수식(傳授式) 교육방법이 될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집단적이며 왕래식과정(의견과 지식교환의 형식)이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임상면에서의 보건교육도 어디서나 어느때나 누구에게나 적절히 다 할수 있으나 역시 진찰실이나 병실에서 환자 개인이나 그 집단에 주로 한국하여 교육(지식습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합실에서 그 벽에 붙여놓은 그림과 표로서 또는 진열된 책자나 판플렛트로서 환자나 그 가족이 자기 진찰받을 기다리는 동안에 읽게하여 바른 지식을 얻게할 수도 있겠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유아 건강상담실(Well baby clinic)에서 대화식의 왕래식 과정으로도 보건교육이 실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실패들)

1) 외래(통원)진찰실에서

(분주하고 붐비나 적당한 실패를 골라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실효가 어느 방법보다도 클 것이다)

- 장내 기생충질환 (왜 구충약을 자주먹는데도 근절되지 않는가—전염경로 예방대책이 될 수 있다)
- 눈병 (왜 가족들에게 번지나—수건따로쓰기 손깨끗이 씻기가 이해된다)
- 홍역 (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많이 죽는가 홍역과 가재즙과 페디스토마)
- 백일해 (백일간이나 알아야 하는 병인가 백일해와 등교문제)
- 비만증 (똥똥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영양에 대한 적절한 지도)
- 결핵 (결핵에 대한 바른지식 가족감염방지)

2) 병실에서

- 심장판막증 (재발이 올 수 밖에 없다 악화방지)
- 폐암 (담배와 관계가 많다 공해)
- 간경변증과 간암 (깡술먹기와 관계가 많다)
- 당뇨병 (계속되어야 하는 식이요법과 치료 악화방지)
- 중풍 (뇌졸중) (병의 본태설명 물리요법 악화방지)
- 고혈압 (원인의 다양성 적절한 지도)

3) 대합실에서

그림, 표, 책자, 판플렛트 따위로 실시)

4) 육아상담실에서

(보육, 영양, 젓먹이기, 예방접종따위의 지도)

5)各科 진료실에서

(임신과 식사, 임신 및 불임지도, 근시안 방지등)

임상면에서의 보건교육은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실시자의 인격성의 기술(지식)이 크게 관련되며 대개가 현실문제를 다루게 되고 또 피교육자가 문제 해결을 촉망하는 만큼 그 교육효과는 어느 방법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